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Monthly Newsletter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에서는
이사회와 감사위원회가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을 매월 정리해서
뉴스레터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Contents

- I. 딜로이트 전문가 보고서
- II. 주요 규제 동향
- III. 국내외 뉴스
- IV. 주요 행사

본 자료는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홈페이지에서 원문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며 본문에서 우측 QR코드를 스캔하면 해당 자료 다운로드 또는 해당 사이트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 Deloitte Korea (클릭하면 홈페이지로 이동)

I. 딜로이트 전문가 보고서

딜로이트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보고서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On the board's agenda 2월호

기술 트렌드가 거버넌스와 감독방식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 ▶ 본 보고서는 기술의 참신함이나 혁신성보다는 비즈니스 사례를 기반으로 하는 전체적인 거버넌스 접근 방식을 제안함
- ▶ 디지털 시대의 도래는 기회와 위협요소를 함께 제공하고 있으며, 기술이 기업 이해관계자들의 보편적인 관심사가 되면서 이사회 기술 대응 또한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관심주제가 되었음
- ▶ 첨단 기술 혁명은 규모의 경제를 개선하고 모든 산업 분야에서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한편 기술이 제공한 풍요로운 혜택은 경제적 불평등, 규제 조사와 소비자 불신을 증가시킨 부분도 있음
- ▶ 효과적인 기술 감독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기술 기반의 거버넌스 전략을 위한 지침을 활용할 수 있으며, 해당 지침으로는 6가지 동인 - 혁신적인 거시적 동인(상호작용, 정보, 계산)과 근본적인 거시적 동인(기술 비즈니스, 사이버 및 신뢰, 핵심업무의 현대화)가 있음
- ▶ 기술 기반으로 거버넌스 전략을 구성하는 프레임워크는 (1) 기술을 모든 구성원이 형성하는 이사회 차원의 전략으로 고려하고, (2) 기술 감독을 거시적인 수준의 혁신 트렌드에 적응하기 위한 능동적인 방법으로 구성하며, (3) 기술 트렌드의 거시적 동인을 거버넌스 의사결정에 통합하는 방법을 포함함
- ▶ 기술에 능통한 거버넌스가 리스크를 완화하고 기업의 경쟁우위를 강화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할 질문
 - 기술 전략이 기업의 포괄성 및 형평성에 대한 가치와 일치하는가? 경영진 의사결정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이러한 가치를 고려하도록 하는 체크포인트가 있는가?
 - 기술 환경의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기회와 위협에 대한 선제적 모니터링 전략은 무엇인가?
 - 해당 분야에서 총체적인 전략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 경영진 외의 내부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필요한가? 외부 이해관계자의 의견은 언제 수집되어야 하는가?
 - 혁신을 활용(또는 미활용)하기로 한 의사결정은 이사회 이해관계자 간의 신뢰관계를 어떻게 개선(또는 저하)할 수 있는가?

다운로드



QR 코드



I. 딜로이트 전문가 보고서

딜로이트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보고서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분기별 이사회 우수사례 1월호

초심으로 돌아가기: 이사회 구성 및 교체

- ▶ 본 보고서는 이사회 구성의 여러가지 중요한 측면에서 이사회가 근본적인 책임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가장 많이 혹은 적게 선임되는 전문성 경력 분야와 다양한 속성, 교체 사유, 규정, 사례 및 방법 등 이사회 이사 선임 관행과 우선순위를 살펴봄
- ▶ 본 보고서는 135개 상장법인을 대표하는 기업 거버넌스 협회(Society for Corporate Governance) 회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2년 11월 서베이 결과를 기반으로
- ▶ 서베이 주요 결과
 - 지난 1~2년 간 선임·지명된 이사들의 배경과 전문성 경력 중 상위 5가지는 홍보·커뮤니케이션, 문화·윤리, 학계·교육, 초임 이사(비영리법인 제외)와 기업 운영활동으로 나타남
 - 향후 1~2년 내에 선임될 이사들에게 가장 필요한 상위 5가지 배경 및 경험은 전략, 지속가능성, 국제성, 특징적인 다양한 특성과 IT(예: 인프라 및 운영)로 나타남
 - 이사회 구성 변화에 가장 일반적으로 언급된 요인은 '이사회 다양성에 대한 추구(57%)' 및 '이사회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질서정연하고 계획된 승계(55%)'로 나타남
 - 이사회 구성 변화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언급된 영향요인은 연령 제한 정책으로 인한 기존 이사의 사임 및 퇴임(각 29%와 27%), '질서정연하고 계획된 승계'(22%), '다양성'(15%) 순으로 나타남
 - 이사회 효과성을 이사회 구성 변화의 영향요인으로 지목한 경우는 대형 상장법인(28%)이 중형 상장법인(8%)보다 많았으며, '질서정연하고 계획된 승계'를 지목한 경우 또한 대형 상장법인(67%)이 중형 상장법인(46%)보다 많았음
 - 이사회 규정에 연령 제한 규정이 있는 기업의 경우, 75세(51%) 및 72세(38%)로 나타남

다운로드



QR 코드



II. 주요 규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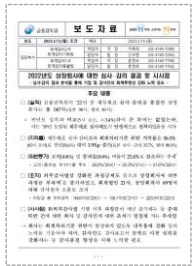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3.13 (월) 금융감독원

2022년도 상장회사에 대한 심사 감리 결과 및 시사점

- ▶ 금융감독원이 2022년 중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종결한 상장회사는 총 147사(표본 98사, 혐의 49사)임
 - 전년도 실적과 비교(5사 감소, 3.4% 감소)하여 큰 차이는 없었고, 이는 '19년 도입된 재무제표 심사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었음을 시사함
- ▶ 재무제표 심사·감리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 지적률은 56.5%(83사 조치)로 전년(54.6%) 대비 1.9%p 상승(표본 심사·감리 35.7%(35사), 혐의 98.0%(48사))하였음
- ▶ 고의(9사, 10.8%) 및 중과실(9사, 10.8%) 비율이 21.6%로 감소하는 추세임*
 - * 고의+중과실 위반비율 추이 : 22사, 28.2%(20년) → 21사, 25.3%(21년) → 18사, 21.6%(22년)
- ▶ 외부감사법상 강화된 과징금제도 등으로 상장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은 증가하였고, 회계법인 21사, 공인회계사 69명에 대해 감사절차 소홀로 조치함
 - * 과징금 총 부과금액 : 94.6억원(20년) → 159.7억원(21년) → 223.5억원(22년)
- ▶ 新외부감사법 시행 이후 과징금이 매년 증가하는 등 중대 위반 건에 대한 회사 및 감사인에 대한 조치가 엄정해지는 추세임
 - 회사는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강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감사인도 감사보고서 발행 전 사전 심리를 강화하는 등 감사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 최근 3년 간 심사·감리 상장회사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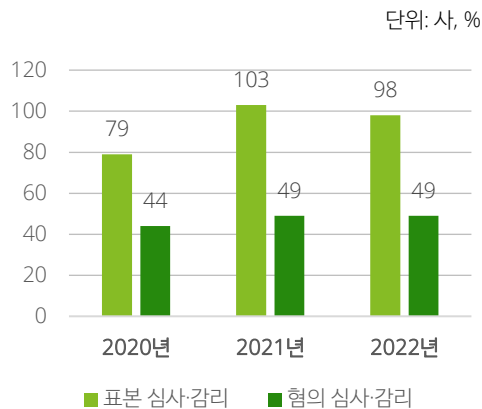
다운로드



QR 코드



구분	'20년	'21년	'22년	'21년 대비	
				증감	증감률(%)
표본 심사·감리	79	103	98	△5	△4.9
혐의 심사·감리	44	49	49	-	-
합계	123	152	147	△5	△3.4



II. 주요 규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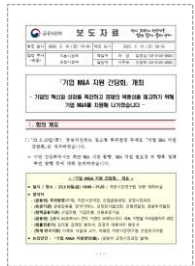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3.10 (금) 금융위원회

「기업 M&A 지원 간담회」 개최

- ▶ 3월 10일,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개최된 간담회에서는 최근 M&A 시장 동향, M&A 지원 필요성 및 향후 정책 추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
- ▶ 김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M&A가 크게 기업의 경영 효율화, 경제전반의 생산성 증대, 경기회복의 세 가지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음
- ▶ 안건 주요 내용

다운로드



QR 코드



구분	내용
1. 검토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인수·합병(이하 'M&A')은 기업의 성장·혁신을 촉진하고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는 중요 수단임 • 그간 PEF 제도 개선 등 기업 M&A를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국내 M&A 시장은 전반적으로 빠른 성장세를* 시현함 * 국내 M&A 규모(조원): ('13년)49.1 → ('15년)94.9 → ('17년)81.6 → ('19년)141.9 → ('21년)134.1 • 다만, 그간 노력에도 불구하고 M&A 시장은 '22년 중순부터 침체 조짐을 보임 ⇒ 기업의 혁신, 성장을 촉진하고,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 M&A 지원방안을 강구
2. 기업 M&A 시장 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 규모: '10년 이후 저금리 기조 하 지속 성장해왔으나, '22년에는 긴축기조·경기둔화 등에 따라 급속히 위축함 - 주요 투자자: 기업 등 전략적 투자자, PE, 재무적투자자(SPAC 등)를 포함해 다양한 플레이어가 활동하며, 특히 PE의 영향력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 - 산업별 특성: 기술, 에너지, 산업재, 금융 등의 영역에서 활발한 M&A가 발생함 - ESG 강조: 최근에는 환경 등 ESG 관련 M&A가 빠르게 확대됨 • 국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 규모: 국제적 추세와 유사하게 M&A가 성장세를 보이다가 자금조달여건 악화 등에 따라 '22년 중 거래규모가 하락함 - 주요 투자자: 그간 PE 규제 완화 노력 등에 따라 PE 출자규모는 지속 확대되며 기업 M&A 시장의 주된 참여자로 정착함 - 산업별 특성: 기술·미디어, 제조, 소비재 등 중심의 M&A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향후 미래 신성장산업 중심의 M&A 수요로 지속할 전망이다 - 국경간 거래: 대형 딜 등에 따른 부침은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증가 추세임
3. 기업 M&A 저해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층적 규제로 인해 M&A 시장 참여에 제약이 있음 • 기업 구조조정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자본시장 역할은 미흡함 • 새로운 산업 구조·시장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부재함 • M&A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가 필요함
4. 향후 정책 추진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에 정부는 ① 기업 M&A 규제 개선, ② M&A를 통한 기업구조조정 지원 강화, ③ 산업재편 수요에 대응한 전략적 M&A 지원, ④ M&A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를 추진할 예정임

II. 주요 규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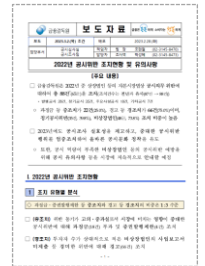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3.2 (목) 금융감독원

2022년 공시위반 조치현황 및 유의사항

- ▶ 금융감독원은 2022년 중 상장법인 등의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위반에 대하여 총 88건*(65사)을 조치함 (조치건수는 전년과 유사(87건 → 88건))
 - * 발행공시 28건, 정기공시 35건, 주요사항공시 18건, 기타공시 7건
- ▶ 과징금 등 중조치가 22건(25.0%), 경고 등 경조치가 66건(75.0%)이며, 공시 유형별로 정기공시위반(35건, 39.8%), 회사 유형별로 비상장법인(48사, 73.8%)의 조치 비중이 높음
- ▶ 2022년 공시위반 조치현황

다운로드



QR 코드



분석 유형	내용
조치 유형별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조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공시위반에 대해 과징금 부과 및 증권발행제한 조치 • 경조치: 투자자 수가 상당히 적은 비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미제출 등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 • 조치수준별 비중은 중조치 25.0%, 경조치 75.0%로 2020년 이후 유사한 수준 유지
공시 유형별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공시 (35건, 39.8%): 정기보고서 미제출·지연제출, 중요사항 거짓 기재 등 • 발행공시 (28건, 31.8%): 비상장법인의 IPO 추진사례가 증가하며 주관사 실사 과정 등에서 과거 공모위반 사례 다수 발견 등의 이유에 기인 • 주요사항공시 (18건, 20.4%): 증권발행결정에 대한 미공시·지연공시 및 주요약정 기재누락이 다수
회사 유형별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치대상회사 총 65사 중 비상장법인 비중(48사, 73.8%)이 높았으며, 상장법인*(17사, 26.2%)은 대부분이 코스닥 법인(15사, 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스닥(15사), 코넥스(2사) 등 총 17사 • 상장: 상장법인의 비율은 26.2%로 '19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 • 비상장: 비상장법인의 비율은 73.8%로 '19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장법인은 정기공시 위반이 가장 큰 비중(32건, 45.1%)을 차지하였고, 발행공시(26건, 36.6%), 주요사항공시(13건, 18.3%) 위반도 다수 발생

- ▶ 향후 금융감독원은 실효성 있는 공시조사를 통해 올바른 공시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안내를 강화할 예정임
 - 2023년에도 전환사채 관련 중요사항 기재누락·거짓기재, 정기공시위반 등을 집중조사하여 조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임
 - 공시위반 주요 조치사례를 보도자료로 배포하고, 상장법인 대상 공시설명회 및 비상장법인 대상 공시의무 교육·홍보를 통해 기업의 공시역량 강화를 지원할 것임

II. 주요 규제 동향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2.27 (월) 금융감독원

내년부터 배당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지급하려면 이번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해야 합니다.

- ▶ 2024년부터 배당액 확정 이후에 배당받을 주주가 결정되도록 배당 절차를 변경하려는 상장회사는 금번 정기 주주총회에서 배당기준일을 의결권기준일과 분리하도록 정관을 개정해야 함
- ▶ 개정 관련 주요 내용

다운로드



QR 코드



구분	내용
배당절차 개선 방안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게 배당액이 확정된 이후에 배당받을 주주가 결정되도록 하기 위해 '배당 절차 개선방안*' 발표 * 기업지배구조발전센터 Newsletter 2월호 II. 주요 규제 동향 - 「배당액을 보고 투자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를 개선하겠습니다.」 보도자료 참고
상장사 정관 개정 필요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산배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회에서 배당기준일을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기준일과 다른 날로 정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사실을 기준일 2주 전에 공고하게 하거나, 정관에서 특정일을 명시하여 규정 • 중간배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당기준일을 이사회에서 자유롭게 정하거나* 정관에서 특정일을 명시하여 규정 * 분기배당 기준일을 배당 결정 이사회 결의일 이후로 설정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개정 예정 (현재는 배당기준일을 분기말로 확정)
정관 개정 시 정기보고서 기재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번 정기 주주총회에서 개선된 배당절차를 적용하기 위해 정관 개정 시에 투자자들이 관련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2023년 1분기 보고서에 관련 내용을 기재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관에 관한 사항: 배당기준일 지정과 관련된 주요 변경사항, 변경이유 등 기재 (I. 회사의 개요 - 5. 정관에 관한 사항) ✓ 배당에 관한 사항: 향후 투자자가 배당여부 및 금액을 확인한 후에 투자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를 변경한 사실을 기재 (III. 재무에 관한 사항 - 6. 배당에 관한 사항)

- ▶ 향후 금융감독원, 상장회사협의회 및 코스닥협회는 상장회사의 정관개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안내자료 배포, 설명회 개최 등 교육·홍보를 지속하고, 투자자들이 변경된 배당일정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이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임

II. 주요 규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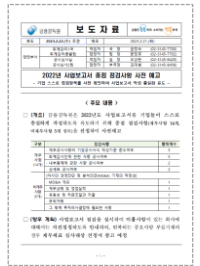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2.22 (수) 금융감독원

2022년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사항 사전 예고

- ▶ 금융감독원은 2022년도 사업보고서의 공시충실화를 유도하기 위해 중점 점검사항(재무사항 14개, 비재무사항 5개 항목)을 선정하여 사전예고함
- ▶ 재무사항에 관한 중점 점검사항

다운로드



QR 코드



구분	내용
1. 재무공시사항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준수여부 (5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거 점검결과에 따른 부실기재 우려 항목 등을 위주로 선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요약(연결)재무정보 재무제표 재작성사유, 내용 및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재고자산 현황 수주현황 등 항목 작성기준 준수 여부
2. 회계감사인에 관한 사항 공시여부 (5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핵심감사사항 등과 같이 감사보고서에만 기재하고 사업보고서 본문에는 누락한 사례가 많은 항목 등을 위주로 선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회계감사의견 및 핵심감사사항 등 감사보수 및 시간 등 내부감사기구·감사인 간 논의내용 전·당기 재무제표 불일치 관련 사항 회계감사인의 변경 등 항목 공시 여부
3.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공시여부 (2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현황 등을 파악하여 감독업무에 활용하고, 제도의 단계적 도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 <ol style="list-style-type: none">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의견 등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등 항목 공시 여부
4. 상세표 공시여부 (2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속회사 및 타법인 출자현황은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 <o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결대상 중속회사 현황(상세) 타법인 출자현황 (상세)의 공시 여부

- ▶ 비재무사항에 관한 중점 점검사항

구분	내용
1. MD&A 개요 (1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사의 전반적인 현황이 쉽게 파악될 수 있도록 다른 항목의 핵심내용 요약 기재 여부 및 ROE, EBITDA 등 성과평가시 사용하는 경영지표가 있는 경우 그 의미와 추이, 원인 등의 기재 여부 사업보고서상 다른 본문을 단순 참조하라고만 기술하거나, 현황과 무관한 홍보성 내용이 나열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II. 주요 규제 동향

2023.2.22 (수) 금융감독원

(계속) 2022년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사항 사전 예고

구분	내용
2.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 (1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사의 영업성과와 미래위험이 제대로 파악될 수 있도록 그 현황과 변동원인, 지속 가능성 등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결과의 기재 여부 재무사항 분석 시 관련 표를 삽입하여 변동추이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며, 단순 수치의 증감이나 일부 원인만 단편적으로 서술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
3. 유동성 및 자금조달·지출 (1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사의 단기 생존성과 재무 안정성 등이 합리적으로 예측될 수 있도록 향후 유동성과 자금조달 및 지출 구조의 변동 개연성과 유사시 대비책 등의 구체적인 내용 기재 여부 유동성 및 자금조달·지출의 단순 현황만 적시함으로써 투자자가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지 못하거나 오인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할 필요
4. 부외거래 (1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무제표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숨어있는 잠재위험이 제대로 보여질 수 있도록 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거래규모, 회사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 여부 부외거래가 회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 내용과 판단근거, 대책 등을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5. 그 밖에 투자이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1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사의 회계 및 추정 등의 정책 변화와 법률·규제환경 변화 등의 기재 여부 기존 서식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재무나 영업, 유동성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등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 향후 2023년 4~5월 중에는 FY2022 사업보고서 점검을 실시하고, 5~6월 중 미흡사항이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자진 정정하도록 안내하되, 반복되는 중요사항 부실기재의 경우에는 재무제표 심사대상 선정에 참고할 예정임

II. 주요 규제 동향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2.15 (수) 전국경제인연합회

매출 500대 기업 조사 2023 ESG 경영 트렌드

- ▶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에서 매출액 500대 기업 ESG 실무자를 대상(100개사 응답)으로 「2023 ESG 트렌드」를 조사함
- ▶ 2023년 ESG 경영 규모는 작년보다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 응답자의 93.0%가 2023년에 ESG 사업 규모를 작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겠다고 응답하였으며, 전경련은 이러한 배경을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글로벌 공감대 확산과 사업구조 전환을 통한 ESG 경영 환경의 정착으로 분석함
- ▶ 실무 주요이슈는 환경(82%)이 가장 높으며, 지배구조와 사회는 각각 9%를 차지함
 - 지배구조 분야 주요이슈로는 준법·윤리경영 시스템 강화(38.5%), ESG 정보공시·평가 대응(28.0%), ESG위원회 운영 실효성 확보(16.8%), 이사회 전문성·다양성 확보(16.1%) 등이 선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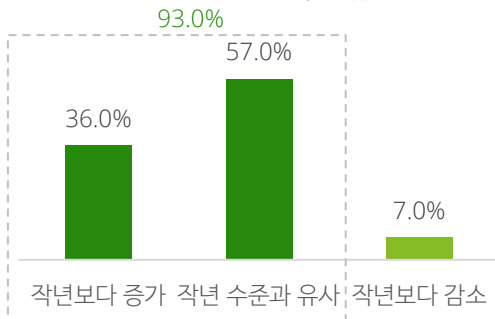
다운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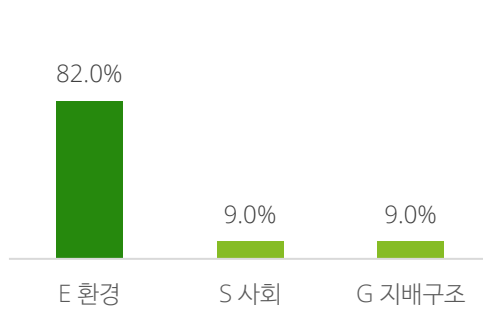
QR 코드



< 2023년 ESG 사업 규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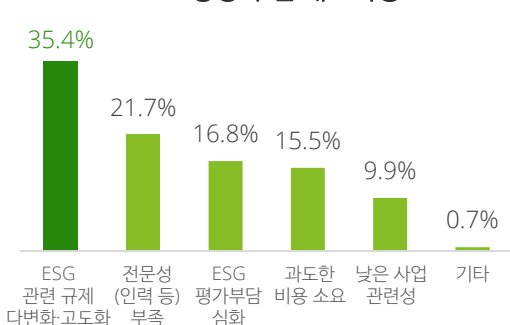


< ESG 중 2023년 중요 이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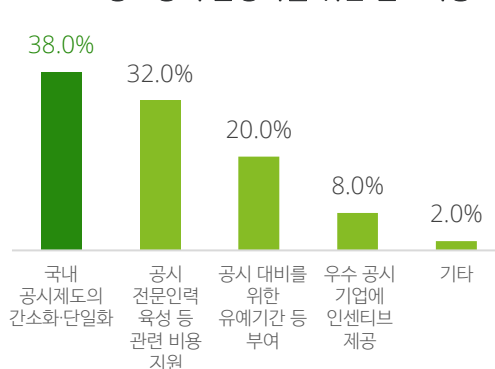


- ▶ 평가업체마다 다른 평가결과로 인한 예측가능성 저하가 ESG 평가 대응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보고됨
- ▶ ESG 정보공시 활성화를 위한 필요사항으로는 국내공시제도 간소화 및 단일화(38.0%)가 최우선 사항으로 선정됨

< ESG경영 추진 애로사항 >



< ESG 정보공시 활성화를 위한 필요사항 >



II. 주요 규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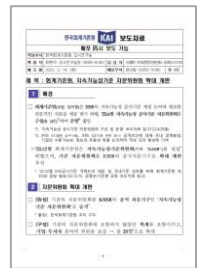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2.14 (화)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 자문위원회 확대 개편

- ▶ 회계기준원은 ISSB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 논의에 필요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 받기 위해 2022년 4월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임
 - *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보도자료 참고 (22.4.29)
 - ** IFRS S1(일반 요구사항), IFRS S2(기후 관련 공시) 공개초안에 대해 국내 경영환경, 기업의 수용가능성, 정보의 유용성 등을 논의하며 국내 의견 형성에 기여
- ▶ 2022년 12월 회계기준원은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이하 “KSSB”)를 설립*하였으며, 기존 자문위원회를 KSSB의 공식자문기구로 확대 개편을 추진함
 - * '22.12 ESG공시기준 국제논의 대응 및 국내기준 검토를 위해 회계기준원 내 KSSB 설립 발표,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Brief 1월호](#) II. 주요 규제 동향 - 「유관기관 합동으로 ESG 공시기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보도자료 참고
- ▶ 기존의 자문위원회를 KSSB의 공식 자문기구인 '지속가능성기준 자문위원회'로 승격시키고, 기존의 자문위원회에 포함하지 않았던 학계를 포함시켜 기업·투자자 분야의 위원을 보강하여 총 20인*으로 확대함
 - * 기업 6인, 투자자 4인, 학계 3인, 전문법인 3인, 유관기관 4인(위원장 포함)
- ▶ 다음을 포함하여 KSSB 업무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임
 - ISSB 공시기준 관련 정규절차문서(예: 공개초안, 토론회, 정보요청서) 검토
 - ISSB 공시기준의 번역안 검토
 - 국내에 적용할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안)에 대한 검토
 -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 과제의 발굴
- ▶ 연 3차례 전체회의를 개최하며, 보다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문위원회 내에 부문별 소위원회(예. 기업별, 투자자별)를 구성하여 부문회의를 수시로 개최할 예정임
- ▶ 향후 KSSB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제 정합성과 국내 경제·산업 환경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데 자문위원회의 자문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

다운로드



QR 코드



III. 국내외 뉴스

기사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업지배구조

- 한국ESG기준원, 의결권 행사 지침서 발간 [임팩트온]
- 금융사, 금리 혜택 등으로 기업의 ESG경영 적극 유도해야 [동아일보]
- 기업 신뢰 구축의 핵심 ESG, 30개국 이사진 61% 답해, 딜로이트그룹 조사 [이코노믹리뷰]
- 여성이사 셋이 모이면 '거버넌스'가 바뀐다 [조선일보]
- 지배구조보다 급한 성장, 효율성에 방점 [더벨]
- 국민연금, 주총서 '이사회 보상' 반대표 많이 던진다 [뉴시스]
- 행동주의펀드의 과도한 배당요구는 기업 성장성 저해 [인사이트코리아]
- '이사회 다양성 추구'... 전자업계, 여성 사외이사 늘린다 [뉴시스]



이사회·감사위원회

- 독립성·전문성 잡은 사외이사 중심 위원회 운영, 5개 위원회 설치 및 외부자문단 활용 [더벨]
- 한국알콜, 소수주주 추천 감사위원 선임키로... 모두가 '원원'한 사례 [인베스팅닷컴]
- 통신 3사 주총 시즌 막 올린다... 이사회 재편에 대표 취임 여부 '축각' [뉴스원]
- 금융당국 개입 대신, 이사회 강화해 경영진 견제해야 [한겨레]
- 행동주의펀드 활약에 이사회 '정상화'... 전문성 갖춘 사외이사 중요 [조세일보]
- 배당제 개선·이사회 다양화·전자투표 도입... '주주가치' 높이는 기업들 [한국일보]
- 사외이사 'CFO 출신' 주목한 구글, '학계 중심' 네이버 [더벨]



한국 딜로이트 그룹

- '딜소싱에 진심' 딜로이트 안진, 전문 프로그램 '모닝피치' 론칭 [더벨]
- 딜로이트 그룹, '딜로이트 인사이트' 앱 출시 [이투데이]
- 수소만 있으면 일본도 이길수 있다 [디지털비즈온]
- 더 커지는 청정수소 수요... 딜로이트 안진, '수소 경제 실현을 위한 딜로이트의 솔루션 제안' 발표 [이코노믹리뷰]
- 딜로이트 중동지역 투자진출 세미나, 중동 분쟁 막아라... "클레임·데이터분석 적극 활용해야" [대한경제]
- 딜로이트 안진, 개정세법 온라인 설명회 성료 [뉴시스]
- 딜로이트 테크 인사이트 - 실리콘 반도체 대체 신소재 전력반도체 부상 [지디넷코리아]

III. 국내외 뉴스

기사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회계투명성

- 감사위원회포럼 '내부통제' 주제로 올해 첫 포럼 열어 [서울경제]
- 회계투명성, 어디까지 왔나...尹정부 노조 회계투명성 강화 나선다 [메트로신문]
- 이번에도 재계 요구대로... 기업 회계감사제, 완화할까 [한겨레]
- 분식회계 기업 투자자 피해 회복, 기업 회계 투명성 제고 기대 [법률신문 뉴스]
- 장부 잘못 쓴 상장사 평균 과징금 16억... 전년比 40% 급증 [대한경제]
- 가상자산 탈세 대응 어떻게... 9월 국세행정포럼서 논의 [연합인포맥스]



부정행위방지

- 늘어나는 부정행위, 이상징후 탐지에 횡령 방지도... 빅4 SI 감사 플랫폼 도입·개발 [아시아경제]
- 회계위반 상장사 과징금, 1년 새 40% 뛰었다 [파이낸셜뉴스]
- 영업비밀 빼돌린 기업, 벌금 최대 45억원으로 오른다 [헤럴드경제]
- 회계·IT 융합 솔루션 첫 개발... 기업 횡령사고 막는다 [이데일리]
- 영업비밀 유출피해 매년 60조원... 산업스파이 처벌 강화해야 [헤럴드경제]



규제 동향

- EU통상 규제의 경우 수출 기업에 중대 영향 미칠 것으로 전망 [법률신문]
- 정부, 메타버스 활성화 위해 30개 규제혁신 방안 발표 [시타임스]
- 수출하락·투자 충격·산업 규제 속 번져가는 K-산업 '레드코드' [뉴스핌]
- ESG 관련 행정부 동향소개 [법률신문뉴스]



M&A

- 기술 뛰어난 韓기업, M&A 매력 크다 - 딜로이트 M&A 총괄 인터뷰 [매일경제]
- 글로벌 경기침체 영향 덜 받는 대기업·대형PE 등에 주목 [이투데이]
- 대형 PE, 적절한 밸류 매물이라면 언제든지 뛰어들 것 [이투데이]
- 글로벌 소비재 M&A는... 니치 향수·건강 스낵·수제 맥주·와이너리 [아시아경제]

IV. 주요 행사

사단법인 감사위원회포럼

「감사 및 감사위원을 위한 2023년 제1회 정기 포럼」

구분	상세		
일시	2023년 4월 18일 (화) 오전 7:30 ~ 9:30 (조찬 제공)		
장소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 오키드룸 (2F)		
대상	감사위원 및 감사님, 사외이사님 참석을 우선순위로 선착순 접수		
프로그램	사회: 김한석 (사)감사위원회포럼 대표		
	시간	내용	Speaker
	7:10 ~ 7:30	참가자 등록	
	7:30 ~ 8:00	조찬	
	8:00 ~ 8:10	환영사	유승원 한국회계학회 회장
	8:10 ~ 8:45	주제1. 자금사고 유형과 감사위원회가 유의할 사항	이승영 한국 딜로이트 그룹 수석위원 Audit & Assurance 본부 Transformation & Analytics
	8:45 ~ 8:55	Break time	
	8:55 ~ 9:30	주제2. 텍스트 감성분석을 활용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서의 내용 분석과 시사점	정석윤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신청하기

QR 코드



IV. 주요 행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온라인 교육 (국/영/중문)

구분	상세
일시	상시
장소	온라인 시청
개요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의의 2.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3. 내부회계관리제도 당사자의 역할, 책임 4. 제도도입으로 인한 지배기업의 영향 5. 제도도입으로 인한 종속기업의 영향 6. 요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딜로이트 그룹과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임직원 및 감사(위원회)를 위한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 동영상을 함께 제작하여 공개함 • 감사수준으로 강화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자산 규모별로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2023년에 대비하여 기업의 성공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지원을 위해 추진된 사항임

동영상 보기

QR 코드



IV. 주요 행사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기업지배기구 Insights」 창간호 발간

- ▶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Center for Corporate Governance, 이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는 2월 27일, 기업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분석 및 제언을 담은 '기업지배기구 Insights' 창간호(1년에 4회, 계간지)를 발간함
- ▶ 「기업지배기구 Insights」는 기업지배구조 현안과 함께 국내 상장법인 실태에 대한 통계분석과 딜로이트 글로벌의 연구자료 등을 포함함
- ▶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김한석 센터장은 "본 창간호는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지배구조 선진화 및 기업의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현안과 발전방안 논의를 위해 발간하게 되었다"고 언급함
- ▶ 본 창간호에는 기업지배기구와 관련한 현안, 전문가 기고문과 함께 딜로이트 글로벌의 연구자료,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의 아젠다와 통계분석, 주요 규제 동향 및 실무 FAQ 등을 담음

구독하기

QR 코드



목차	내용
I. 전문가 기고	① 지배구조 우수기업과 재무실적 간의 연관성에 대하여 -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센터장 · Audit&Assurance 부문 COO 김한석 ② 기후변화로 인한 기업의 위기와 기회 -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박재환 교수
II. CCG 아젠다	① 2023년 이사회 아젠다 ②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사항 및 시사점
III. 데이터 포인트	① 국내 상장법인 이사회 다양성 확보 - 여성 사외이사 비중 추이를 중심으로 ② 2023년 글로벌 감사위원회 서베이로 살펴보는 지배기구의 당면과제
IV. 주요 규제 동향	① IFRS 지속가능성 공시 최종기준의 방향성 및 지배기구 감독의 시사점 ② 2023년 금융위원회의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추진과제
V. FAQ	① 주주제안권 ② 재무제표 감리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Contact



김한석 파트너

Partner / Audit & Assurance,
Center for Corporate Governance Leader



정현 파트너

Partner / Audit & Assurance



김학범 파트너

Partner / Risk Advisory



오정훈 파트너

Partner / Audit & Assurance



황현지 Consultant

Consultant / Center for Corporate
Governance

Tel: +82 2 6138 6815

E-mail: krccg@deloitte.com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